세계 1위의 굴욕

조코비치

테니스 조코비치 1R 탈락·양궁 세계新 김우진 32강 불발

유도 세계1위 수난시대…5명 중 코소보 켈멘디만 금메달

'올림픽 무대에서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림도 없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환하게 빛내줄 것으로 기대된 정상급 스타들이 줄줄이 탈락의 굴욕을 맛보고 있다. 말 그대로 '이변 속출'이다.

세계랭킹 1위가 올림픽 금메달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는 올림픽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진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에 4위에 그친 조코비치는 8일(한국시간) 올림픽 테니스 센터에서 치러진 남자 단식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공교롭게도 조코비치를 꺾은 상대는 4년 전 런던 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굴욕을 안겨줬던 마르틴 델포트로(아르헨티나)였다.

세계랭킹 1위들이 가장 수난을 당한 종목은 유도다. 9일까지 치러진 남녀 3체급에서 세계랭킹 1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례는 딱 한 차례다.

유독 세계랭킹 1위 선수가 많은 한국에서도 남자 60㎏급 김원진(양주시청), 66㎏급 안바울(남양주시청), 73㎏급 안창림(수원시청) 등 체급별 랭킹 1위를 지킨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에 실패했다.

양궁 김우진

유도 안창림

김원진은 8강에서 탈락해 패자부활전에 나섰지만 동메달 결정전 출전 자격마저 놓쳤다. 그나마 안바울은 결승까지 올랐지만 한수 아래로 평가되는 세계랭킹 26위인 파비오 바실(이탈리아)에게 절반패로 '금빛 사냥'에 실패했다. 기대를 모았던 안창림 역시 3회전(16강)에서 세계랭킹 18위의 디르크 판 티첼트에게 무릎을 꿇고 탈락의 고배를 맛봤다.

여자 유도도 세계랭킹 1위의 수난이 이어졌다.

여자 48㎏급 랭킹 1위인 문크흐바트 우란체체그(몽골)는 정보경(안산시청·랭킹 8위)에게 8강에서 반칙패로 물러났다. 또 여자 57㎏급 랭킹 1위인 도르즈수렌 수미야(몽골)도 결승에서 브라질의 하파엘라 시우바(랭킹 11위)에게 절반패를 당했다.

유도에서 지금까지 랭킹 1위의 자존심을 지킨 선수는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코소보의 여자 유도 간판스타 마일린다 켈멘디다. 켈멘디는 코소보 국기를 처음 달고 나선 리우올림픽에서 여자 52㎏급 금메달로 코소보 역대 올림픽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9일 치러진 양궁에서도 대이변이 연출됐다. 아쉽게도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 김우진(청주시청)이 이변을 피하지 못했다.

세계랭킹 1위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세계랭킹 29위인 리아우 에가 에거사(인도네시아)에게 세트점수 2-6(29-27 27-28 24-27 27-28)으로 졌다.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이번 대회 출발부터 남달랐던 김우진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로 상승세를 타는듯했지만, 개인전 32강 탈락으로 국내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합뉴스

기보배 "김우진 탈락에 정신 번쩍"

올림픽 양궁 사상 첫 개인전 2연패에 도전하는 기보배(광주시청)가 남자 세계랭킹 1위 김우진(청주시청)의 개인전 초반 탈락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밝혔다.

기보배는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 본선 32강에서 마르첸코 베로니카(우크라이나)를 세트점수 6-2로 이겼다.

기보배는 16강행을 결정지은 후 기자들과 만나 "우진이 경기 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같이 금메달을 따서 그런지 들뜬 분위기였다"면서 "(우진이 경기) 이후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남 일 같지 않았다"면서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쉬운 상대를 만나든 어려운 상대를 만나든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몸을 준비했다"면서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 느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양궁 한류' 9개국 지도자 다 모였네

'양궁 한류'다.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전 세계 한국인 양궁 지도자들의 단체 얘기다. 〈사진〉

리우올림픽 양궁 경기장을 배경으로 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인 양궁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였다.

양궁 종목에 출전한 56개국 중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끄는 9개 나라 지도자들이다.

윗줄 왼쪽부터 한국 남자양궁팀 박채순 감독을 비롯, 멕시코 이웅, 대만 구자청, 미국 이기식, 한국 최승실 남자팀 코치, 이란 박면권 감독, 말라위 박영숙, 말레이시아 이재형, 한국 문형철 총감독이다.

아래는 왼쪽부터 스페인 조형목, 일본 김청태, 스페인 이미정 감독이다.

이기식 감독이 이끄는 미국 남자팀은 한국에 져 은메달을 땄고 구자청 감독의 대만 여자팀은 한국과 4강에서 맞붙었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말라위 박영숙 감독은 아프리카 빈국 소년의 지도자이자 후견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궁 金' 기보배·최미선에 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축전

윤장현 광주시장은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과 두 선수 부모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윤 시장은 축전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147만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 노력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전남도체육회장인 이낙연 전남지사도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를 제패한 양궁의 전남 출신 최미선에게 축전을, 최 선수 부모에게는 축하 꽃바구니를 각각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 지사는 축전에서 "2016년 제31회 리우올림픽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투혼을 보여주신 당신은 진정한 대한의 건아이며, 자랑스런 전남인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선수는 무안 일로초와 전남체육중·고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여대에 재학중이다.

최 선수는 기보배(광주시청), 장혜진(LH)과 함께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으로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러시아를 세트점수 5-1로 이겼다.

전남도는 대회 종료 후 메달 획득 임원·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 지사 주관 메달리스트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kwangju.co.kr

핸드볼 간판 김온아 못나오나

어깨 부상에 출전 불투명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김온아(28·SK)가 어깨를 다쳐 남은 경기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온아는 8일(한국시간)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핸드볼 조별리그 B조 2차전 스웨덴과 경기 도중 어깨를 다쳤다. 이날 세 골을 넣은 김온아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투입됐으나 어깨 통증으로 벤치로 물러났다.

한국은 이날 스웨덴에 28-31로 져 2연패를 당한 데다 김온아까지 다쳐 8강 진출 전망이 어두워졌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코칭스태프나 의무트레이너 모두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경기 출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조별리그 첫 경기인 스페인전에서 무릎을 다쳐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김온아는 올림픽 2개 대회 연속 부상에 시달리게 됐다.

김온아가 어깨 부상을 털고 복귀해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외 게재불가

8월 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8월 17일(수) 경남 밀양군-가지산, 운문산, 백운동로타리 06 : 50, 교원공제 회관 07 : 00,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07 : 10, 동광주 IC 입구(농산물 경매장옆 버스승강장) 07 : 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98612 4504, 010 8766 0170

8월 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8월 20일(토) 강원도 삼척 태백 육백산- 응봉산-신비한 익끼폭포,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 : 20, 염주체육관 03 : 30, 한국병원앞 03 : 40, 문예회관후문 03 : 5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4 : 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8월 21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8월 21일(일) 남원 지리산 뱀사골, 염주체육관 07 : 00, 학동 증심사입구지하철역3번출구 07 : 20, 광주역 07 : 40, 문예회관후문 07 : 45, 동광주웨딩프라자 07 : 50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총 회 공 고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골든 힐스타워 피해자 대책 총회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 주 최 : 골든힐스타워비상대책위원회
- 개최안내
  1)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오후 2시
  2)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체육관 옆 국민생활관 1층
  3) 안건 : 골든힐스타워 피해복구를 위한건
  4) 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피해자

※문의전화 : 변호사 박구용 문종욱 법률 사무소 062-236-0153

사무국장 김 승 호

채 권 신 고 공 고 (1차)

본 법인은 2015년 8월 4일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해산 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삼진영농조합법인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내산로 131-53

청산인 오 정 곤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이하 "갑")와 중앙전력 주식회사(이하 "을")는 2016년 8월 9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0일

(갑) 주식회사 광성이엔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7(월출동)
사내이사 박 선 용

(을) 중앙전력 주식회사
경상남도 사천시 석양길 152(노룡동)
대표이사 차 승 주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 사건번호 : 2016느단30100 상속한정승인
- 사 망 자 : 양종일(760303-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64, 107동 109호(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영광군 군서면 가사리 185

위 망 양종일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6년 8월 10일

- 공고인 : 양규용, 조운심
- 한정승인수리일 : 2016년 7월 25일
- 공고기간 : 2016. 8. 10 ~ 2016. 10. 11
- 신 고 처 : 양규용(010-6539-3890)

즐거운 영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1관	제이슨본/덕혜옹주
2관	부산행/수어사이드스쿼드
3관	부산행/인천상륙작전
4관	제이슨본/빅/극장판요괴워치
5관	제이슨본/덕혜옹주
6관	부산행/수어사이드스쿼드
9관	인천상륙작전/덕혜옹주
7관씨네커플	빅/부산행/인천상륙작전
8관씨네커플	부산행/인천상륙작전

단체 및 대관문의 : 070-4940-0523

MEGABOX |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금주개봉작
제이슨본	터널
극장판요괴워치	국가대표2
빅	
부산행/빅	
인천상륙작전/아이스에이지/극장판요괴워치	

T멤버쉽 동반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LGT 멤버쉽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 카드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누르고→6→6→1→4→9단계별로 안내를 따라가며 누르세요

MEGABOX | 상무점 메가박스

1관	덕혜옹주/부산행
2관	인천상륙작전
3관	제이슨본/수어사이드스쿼드
4관	부산행/빅/덕혜옹주
5관	제이슨본/나우유씨미2
6관	부산행/빅
7관	인천상륙작전/아이스에이지/극장판요괴워치
8관	수어사이드스쿼드/제이슨본
9관	인천상륙작전
10관	부산행

단체 및 대관문의 : 1544-0070
T멤버쉽 동반4인까지 2000원 할인